

털을 선호한다”며 “아울러 비즈니스 호텔은 특급호텔보다 저렴한 10만~20만원대의 가격에 객실은 특급호텔 못지않게 깨끗해 개별여행객 수요가 꾸준히 있다”고 전했다.

## 패션

### ■ 개요

2015년 패션 시장은 전년보다 이어진 경기 불황의 여파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생한 6~8월 동안은 세일도 힘을 받지 못하면서 매출이 반 토막 나는 브랜드가 속출했다.

업종별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최근 몇 년간 몸집을 불린 SPA(제조·유통 일괄형) 브랜드는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여성 정장·캐주얼, 아웃도어 브랜드는 침체에 허덕였다. 또 몇 년간 급증했던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환율 여파로 2015년에 처음으로 감소해 눈길을 끌었다.

이런 가운데 유명디자이너 정구호가 처음으로 총감독을 맡은 ‘2016 S/S 헤라서울패션위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 ■ 수렁 빠진 여성·아웃도어 브랜드

패션계의 불황은 특히 여성 패션 브랜드에서 두드러졌다.

LF(옛 LG패션)가 운영했던 브랜드 ‘모그’가 매출 부진으로 백화점에서 매장을 철수하고, 온라인으로 채널을 좁혔다. ‘안지크’ 역시 전 지방 점포를 철수했으며, 세련된 커리어룩을 선보였던 ‘YK038’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또한 일부 브랜드는 백화점에서 편집 형태로 묶이는 수모를 당했다.

아웃도어 브랜드 역시 성장은커녕 2014년에 이어 침체를 거듭했다. 2015년 많은 브랜드들이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일부 브랜드는 매출 신장률이 -30%에 육박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이에 아웃도어 시장의 가수요 거품이 꺼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수입 캐주얼 시장은 신규 브랜드들이 대거 시장에 진입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합리적인 가격과 개성적인 디자인을 내세우며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섰다.

‘일레븐파리’, ‘리우조’, ‘베르니스’와 같은 브랜드가 눈에 띄는 가운데 ‘베르사체진’, ‘모스키노러브’, ‘씨바이클링’ 등 세컨드 브랜드까지 경쟁에 가세했다.

### ■ 성장세 이어간 SPA 브랜드

2015년 패션업계의 긴 불황 속에서도 SPA 브랜드만 승승장구했다. 특히 일본계 SPA패션 브랜드 ‘유니클로’가 국내 SPA 브랜드 가운데 매출 1위를 기록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유니클로는 2015 회계연도(2014년 9월 1일~2015년 8월 31일)에 무려 1조1천169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2005년 9월 한국에 진출한 지 10년 만에 매출 1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토종 할인점 이마트의 자체 의류브랜드

(PB) ‘데이즈(Daiz)’가 2위로 뒤를 이었다.

프랑스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 발망과 SPA 브랜드 H&M의 협업 제품이 11월 공개되면서 제품을 사기 위해 밤새 노숙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개장 전부터 H&M 명동 눈스퀘어점 앞에는 350여 명, 압구정점에 400여 명, 잠실롯데월드점에 250여 명, 부산 센텀시티점에 150여 명 등 1천100여 명이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 ■ 환율 여파로 해외직구액 첫 감소

수년간 가파르게 증가하던 해외 직구 규모가 2015년 처음으로 감소했다.

관세청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 해외직구물품 수입액은 총 15억2천342만8천 달러로 1년 전보다 약 1.4%(2천148만7천 달러) 줄었다. 해외직구 금액이 감소한 것은 2006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2011년 72% 늘어난 해외직구액은 이후에도 매년 47~50%씩 증가했지만, 2015년에 추세가 반전됐다.

건수 기준으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2015에는 총 1천586만3천 건이 직구로 수입돼 전년보다 2.1%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1년 이후 연간 39~57%씩 급증하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크게 둔화한 것이다.

해외직구의 감소는 2015년 원/달러 환율이 수년 새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데다 국내 소비 진작책이 활발하게 집행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5년에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K-세일데이 행사, 병행수입 활성화 등 내수 진작책이 효과를 거둔 영향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 ■ ‘S/S 헤라서울패션위크’ 폐막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디자인재단이 주관한 ‘2016 S/S 헤라서울패션위크’가 2015년 10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렸다.

이번 ‘헤라서울패션위크’는 유명 디자이너인 정구호를 총감독으로 영입한 뒤 첫 행사여서 개막 전부터 눈길이 쏠렸다.

옛새 동안 총 66차례 패션쇼가 열렸으며 박춘무, 지춘희, 박윤수, 장광효 등 국내 최정상급 디자이너와 홍해진, 계한희, 김무홍, 고태용 등 최근 주목받는 젊은 디자이너들이 참가해 완성도 높은 컬렉션을 선보였다.

버그도프 굿맨, 삭스 피프스 애비뉴, 셸프리지, 몽마르세, 10 꼬르소꼬모 등 유명 백화점과 편집매장 구매 담당자를 포함해 총 1천여 명의 국내외 바이어와 패션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폐막식에서 진태욱 디자이너와 박항치 디자이너가 ‘명예디자이너상’을 받았으며 ‘베스트디자이너상’은 강동준 디자이너에게 돌아갔다. 생애 단 한번만 받을 수 있는 신인 디자이너상인 ‘헤라 서울리스타상’은 신규용 디자이너가 차지했다.

정구호 총감독은 “이번 헤라서울패션위크는 컬렉션 자체도 질적으로 향상되고 해외 유명 판매처의 임원급 인사들이 참가해 양적으로도 개선됐다”고 자평한 뒤 “아시아 최고의 패션위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